

# 전남도 고평자 교통사고 방지 전방위 대책

### 5년만에 사고·사상자 70% 늘어 보호구역 늘리고 안전시설물 운전면허 자진납부 적극 유도

65세 이상 고평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도가 올해부터 고평자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고평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의 65세 이상 고평자는 지난해 말 현재 42만2548명으로, 도내 인구(190만3383명)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가 지난 2014년 1393건 2235명에서 지난해 2366건 3768명으로 무려 973건 1533명이 급증했다. 건수와 인명피해가 7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노인보호구역 곳곳에 지정해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고평자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43개소에 불과한 노인보호구역 70개소까지 27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모두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보호구역 지정,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도 설치한다. 마을 앞 보행자 안전

구역 80곳도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4억2000만원을 들여 마을 진입로 등이 무신호 교차로인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속도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고평운전자자 운전면허를 자진납부할 경우 인센티브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올해 1억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70세 이상 고평자 1680명의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어르신 교통안전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시·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근 세부계획을 세워 시·군 보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고평자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남도안전학당,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갈수록 고평인구는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전남도가 다양한 시범모델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적격지”라며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일자리,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전남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늘리고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



감염병관리지원단 간담회 전남도는 지난 2일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코로나19' 감염 차단 대책 마련을 위한 '감염병 관리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강승지 전남감염병지원단장, 윤나라·신민호·권순석 자문위원, 순천·간성·목포의료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상황 등을 공유하고, 역학조사에 따른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범위 등을 협의했다.

### 연도·연륙교 개통 관광객 급증 전남도 섬 관광안내소 설치한다

전남도가 연이어 개통하고 있는 연도·연륙교 건설로 섬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신안 천사대교가 개통하면서 신안 섬 관광객이 지난 2018년 말 97만8000명에서 2019년 말 190만2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 28일 여수 화양-고흥 적금을 연결하는 연도·연륙교 '백리섬섬길' 역시 개통해 여수, 고흥 일대 섬에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까지 최근 연도·연륙교가 개통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222여억원을 들여 2개소 내외에 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순천·나주에 VR·AR 제작거점센터 들어선다

### 전남도, 과기부 공모 당선 3년간 국비 등 98억원 투입

오는 2023년 순천과 나주에 지역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거점센터가 들어선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당선돼 순천, 나주 2곳에 센터를 신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년간 국비 38억5000만원 등 사업비 98억5000만원을 들여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주는 스마트전력, 순천은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연

계·융합하는 방법으로 실감형 콘텐츠(VR·AR)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혁신인재 양성 300명, 신규고용 200명의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신규창업 50개사, 선도기업 유치 10개사 등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매출증가율 연 15%, 기술이전·상용화 35건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하게 되며, 진흥원은 나주의 '전남 실감미디어 산업지원센터',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등과 자체 노하우, 지자체·산학연 거버넌스 등을 활용해 성공

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윤진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관광관은 "AR·VR은 2022년 전 세계적으로 119조 원 규모의 시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이라며 "앞으로 VR·AR 제작거점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관련 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전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AR·VR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수도권외 지역에서도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산업과 AR·VR을 융합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상용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수산식품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창업 멘토링 등 13개 프로그램

전남도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분야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150개 창출, 150억원의 매출 증대에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품질인증, 기술교육 등 13개 프로그램을 전남도 소재 기업, 예비창업자 30개사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기업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전남도는 그동안 지원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노후유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 기업 지원비용을 일부 선

지급 방법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누리집에 세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 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분야 유망기업과 창업자를 발굴해 성장단계별 교육, 마케팅,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계속해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개설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그동안 지원한 기업은 총 94개사로, 연 매출이 16%(약 587억원) 증대됐고 43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시설 집산화·제품 개발...김 수출 경쟁력 높인다

전남도가 주력 수산물인 김 가공·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액도 급증하고 있으나 전남도내 김 가공·수출시설은 크게 미약하기 때문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김 수출규모는 지난 2010년 1.1억 달러에서 지난 2017년 5.1억 달러, 지난해 5.8억 달러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김이 급부상하고 있어 산업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김 가공시설 집산화, 에너지·가공용수·다소비 구조 개선 등을 우선 추진한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1089억원의 사업비로 목포 대양산단 2만8133㎡에 김 가공시설 집산화, 수출제품 개발, 기업 창업

지원 등이 가능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수산물 수출 3억 달러 달성, 생산유발 1685억원 및 고용 1297명 창출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김 가공공장 6곳에 대해서는 27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절감 장비(히트펌프)를, 390억원을 들여 120개소에 김 가공용 수 정수시설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김 가공 기술력, 위생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해남 112곳, 고흥 57곳, 완도 55곳, 신안 32곳, 진도 21곳 등 모두 327곳의 김 가공공장이 있다. 전남의 김 생산량은 1억3887만속(생산액 8289억원)으로 전국(1억7746만속)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공·수출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농식품부 공공급식 생산 구축사업 공모 참여

전남도가 공공급식 로컬푸드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은 군·공공기관·학교 등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로컬푸드)로 소량·다품목·연중생산이 가능한 지역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안정적인 생산·공급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국 15개소 내외의 지자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는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

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중인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군·급식,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가점을 받는다. 공모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농식품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3월말 최종 선정 발표된다. 선정된 시·군은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 운영 ▲공급 식재료 지역 생산 품목 실태조사 ▲소요처 사용 품목 분석 ▲공급 생산능가 조직화 교육·홍보 등 교육·컨설팅 분야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